

스마트 온달과 코딩 평강 공주



작가

AI도움받아 000 줄

작가프로필



따뜻한 감성으로 이야기를 짓는 동화작가입니다.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태어나 지금은 바다와 노을이 아름다운 부안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포근히 덮어주는 겨울을 가장 좋아하며, 새로운 풍경과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통해 이야기의 영감을 얻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 떠나는 소소한 식도락 역시 제 삶과 작품에 다채로운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일상 속 작은 발견과 여행의 설렘을 담아, 아이들에게 따뜻한 꿈과 미소를 선물하는 동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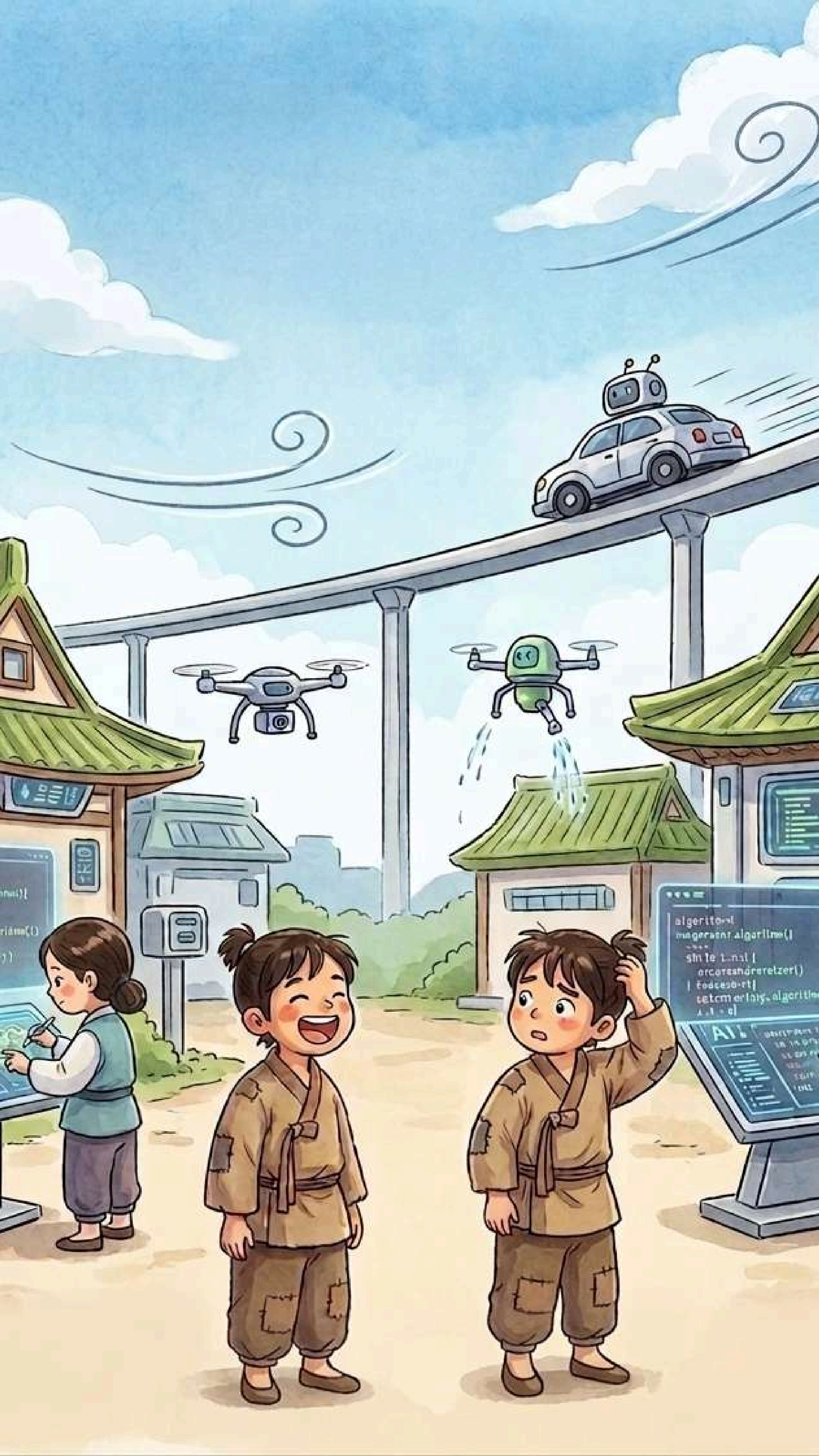
2026.7.29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
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
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
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
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
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
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
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
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 컴퓨터 언어를 모르는 온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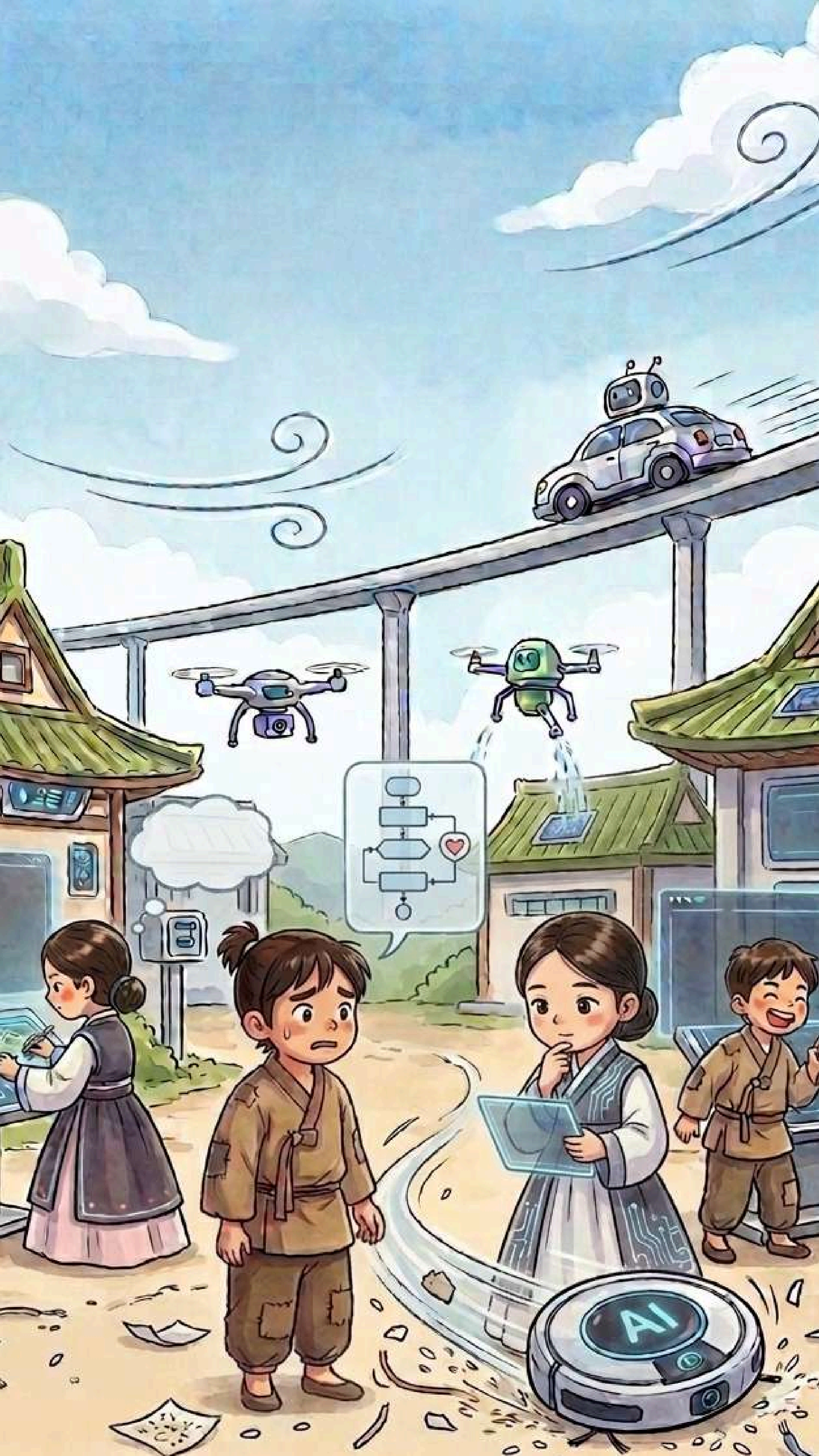
하늘엔 바람이 "휘잉~" 불고 로봇이 달리는 미래 마을에, 키는 작지만 "하하!" 하고 밝은 웃음을 짓는 온달이가 살았어요. 온달이가 "버럭!" 소리쳐도 인공지능 청소기는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안돼..." 하고 슬퍼했지요. 코딩을 몰라 '바보 온달'이라 불리던 그때, 단아하고 차분한 코딩 천재 평강이가 저벅저벅 다가와 코딩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했어요.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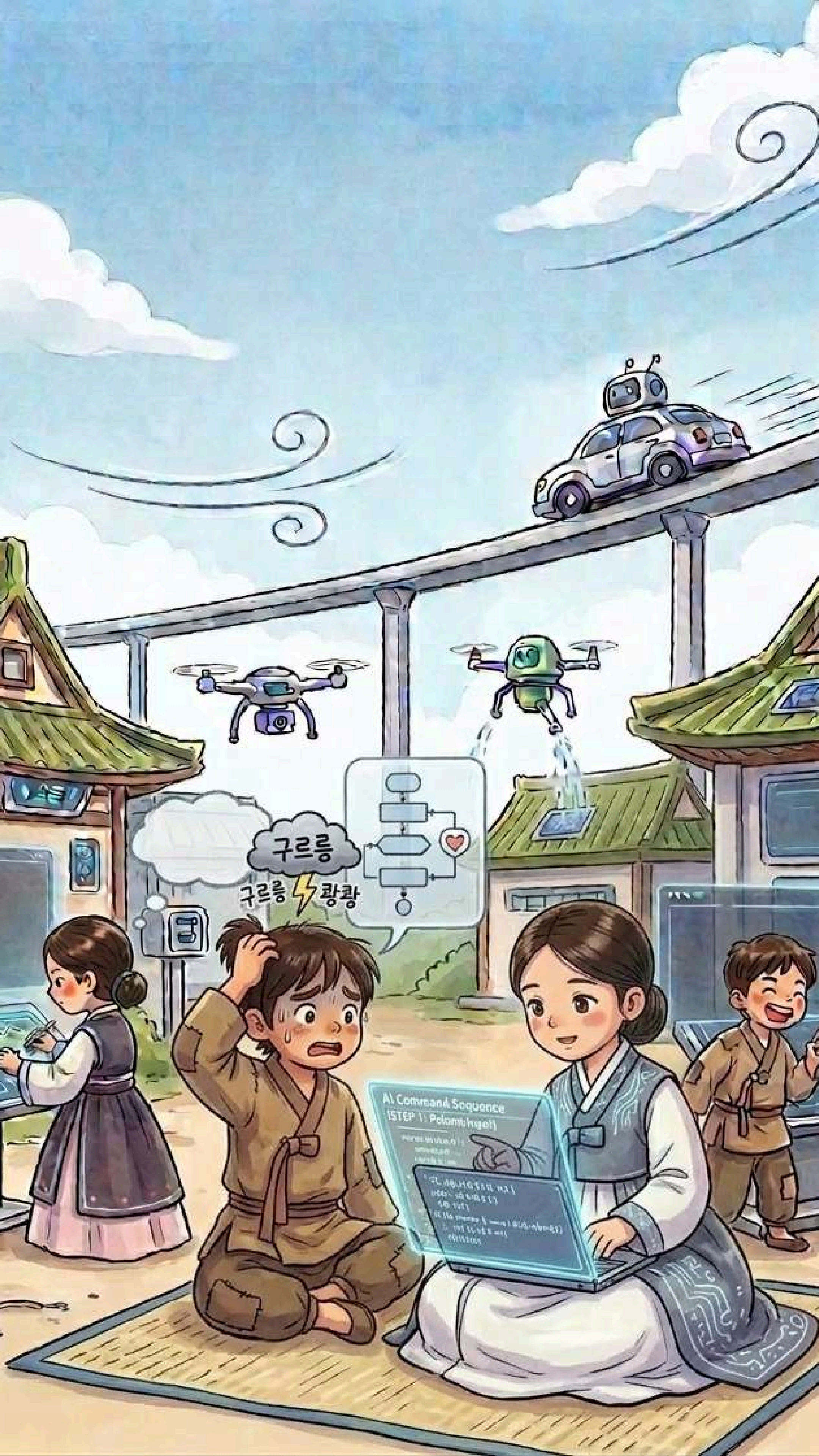
"앗, 로봇 청소기야! 버럭 화내기 전에 당장 멈춰!" 온달이가 소리쳤지만, 인공지능 청소기는 온달이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결국 온달이는 고개를 숙이고 "안 돼..."라며 슬픈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마을 아이들은 그런 온달이를 '바보 온달'이라고 놀려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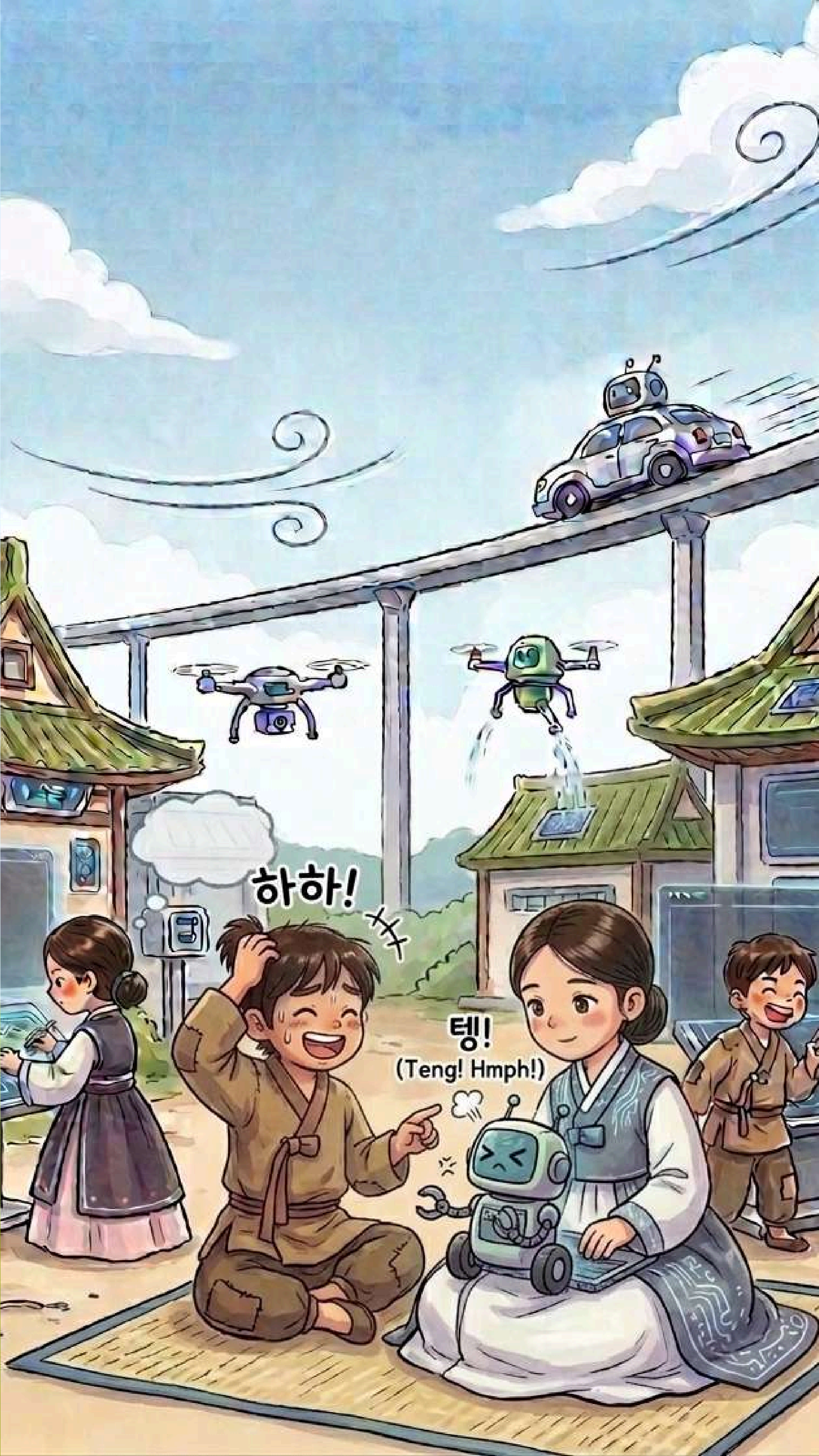
3장

그때, 코딩 천재 소녀 평강이가 온달이 앞에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평강이는 예쁜 외모에 언제나 차분하고 진지한 아이였지요. 평강이는 속상해하는 온달이를 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음, 내가 온달이에게 AI와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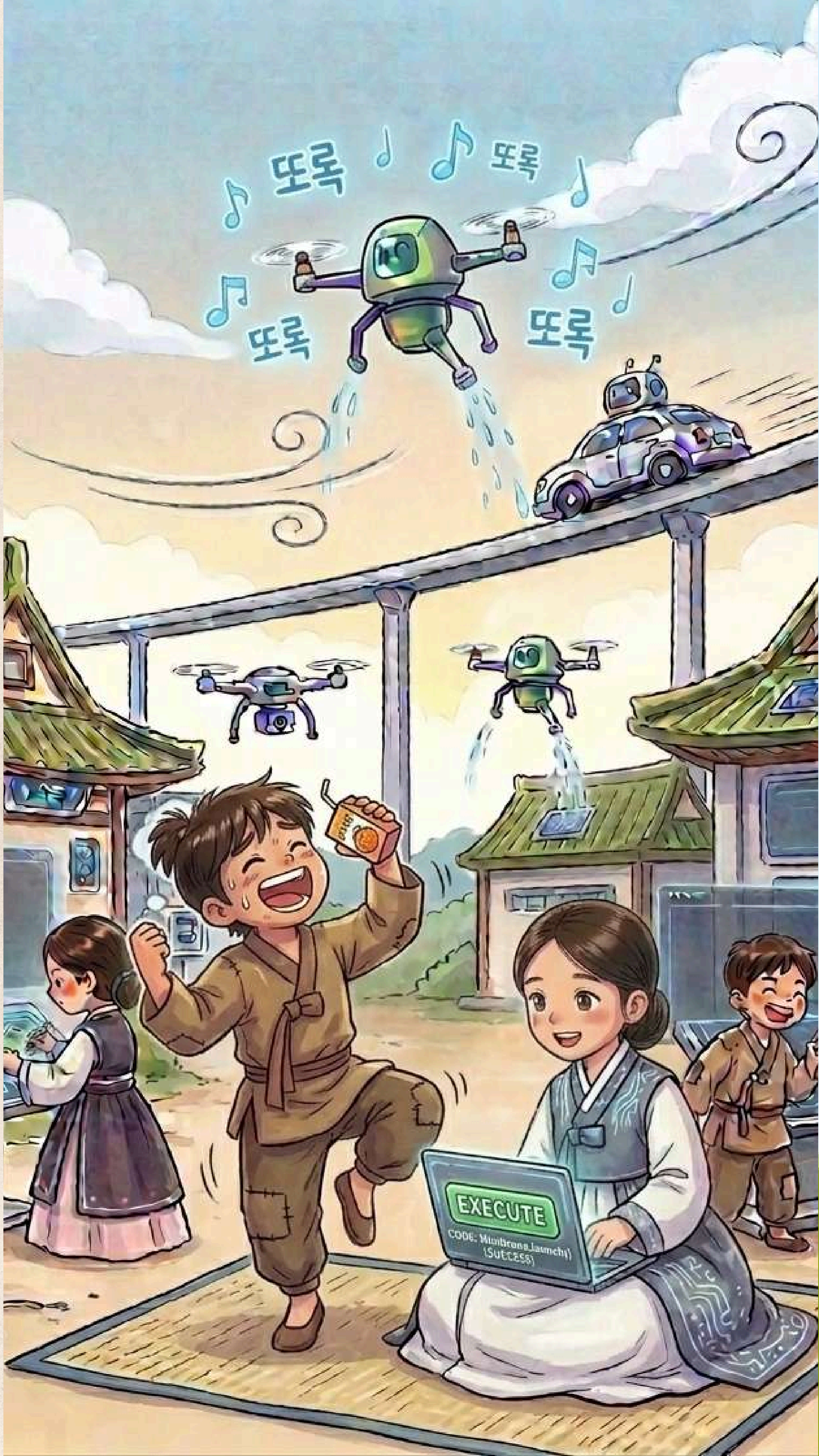
4장

"온달아, AI 로봇에게 명령할 때는 눈물을 꾸욱 참으면서 차근차근 순서를 짜야 해." 평강이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처음엔 화면에 가득한 코딩 언어를 보고 온달이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마치 머릿속에 천둥이 "구르릉 쿵 쿵" 치는 것처럼 복잡했거든요.



5장

하지만 온달이에게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잖아요? 코딩을 하다가 로봇이 엉뚱하게 핵 토라져 텅! 하고 성질을 부려도, 온달이는 "하하! 요 녀석 봐라? 다시 해보지 뭐!"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6장

"자, 이제 준비, 땅! 코드를 실행해
봐!" 평강이의 말에 온달이가 버튼을
누르자, 미니 드론이 빗방울처럼 똑똑
똑똑 예쁜 소리를 내며 하늘로 솟구쳤
어요. 온달이는 기뻐서 맛있는 주스를
원샷으로 들이키며 기쁨의 춤을 추었답
니다.



7장

그러던 어느 날, 미래 마을의 메인 컴퓨터가 지독한 바이러스에 걸려버렸어요! 신호등은 제멋대로 깜빡이고, 청소로봇들은 사방으로 먼지를 뿜어내며 마을이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평강이가 골똘히 모니터를 보며 방법을 찾았지만, 혼자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안돼, 어찌지!" 하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8장

그때 온달이가 평강이의 손을 잡으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평강아, 걱정은
꾸욱 누르고 힘내자! 자, 달리기 시합
하는 것처럼 준비, 땡! 하고 같이 시작
하는 거야!" 온달이의 쾌활한 말에 평
강이는 큰 힘을 얻고 고개를 끄덕였어
요.



9장

평강이가 차분하게 바이러스의 약점을 찾아내면, 온달이는 저벅저벅 다가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자 복잡하게 꼬여있던 바이러스 코드들이 마치 강물이 "출렁"이듯 부드럽게 풀렸고, 온달이가 마지막 버튼을 꾸욱 누르자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쏙 뽑아냈어요.



10장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온달이를 '바보 온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온달이와 평강이가 지나가면 모두가 "하하!" 하고 밝은 웃음으로 환영해주지요.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맛있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앞으로도 마을을 지키는 최고의 코딩 파트너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